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27일 수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27호

새해맞이 공동행사, 통일연대 불참속 출발

26일 오전 8시 2분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에 참여하는 민화협, 7대종단 등 220여명이 속초항을 향해 출발했다.

이로써 25일 통일연대 소속 41명을 포함해서 총 46명의 방북 불허로 행사 자체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 어렵게 첫 걸음을 떼었다.

한편 통일연대는 출발장소인 경북궁 동편 주차장에서 한시간여 동안의 긴 토론 끝에 ≫통일부의 41명에 대한 방북불허 결정은 민간통일운동 자체를 말살시키는 조치이자 사실상 민족공동행사를 결렬시킨 사태≫라며 전원 불참할 것을 결정했다.

통일연대 불참결정 후 민화협 이승환 사무처장은 ≪종단과 민화협, 통일연대가 역할을 나누어 맡는 것으로 생각한다.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대로 남는 사람은 남는대로 새해맞이 공동모임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통일연대는 지금까지 많이 인내해 왔고 결코 감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번 41명의 방북불허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결정있었다. 이것은 병백히 민간통일운동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통일부를 규탄했다.

김철 천도교 교정은 ≪남북교류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두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우리는 대승적이고 선도적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화협과 종단은 ≪불신의 자락 넘어 화해와 평화의 새희망을 일구고 오겠습니다≫라는 출발성명을 통해 ≪금강산으로 떠나는 길목에서 우리는 반세기 이상의 분단이 뿌려놓은 불신의 자락 위에 서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는 깊은 불신의 눈에 가리워 화해와 평화에 새희망을 보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밝히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7천만 겨레에 통일염원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통일연대도 25일 ≪통일부의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참가 대표단 46명에 대한 불허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통일부의 46명 방북불허조치는 부분적인 불허가 아닌 민간통일운동자체를 중대하게 왜곡, 말살시키는 조치이며 사실상 민족공동행사를 결렬시킨 사태≫라고 규정하고 ≪통일연대는 어떠한 난관과 장애가 앞을 막아 나선다해도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민간통일운동의 본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통일부로부터 방북이 불허된 인사 46명 중에서 통일연대 소속은 41명, 나머지 5명은 민화협 등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뉴스 2002/02/26

여야 테러방지법합의

여야가 26일 총무접촉을 갖고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 확대가 우려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정보위는 이날 국정원에 검찰·경찰·군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을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대폭 수용하는 형태로 통과시켰다. 정보위는 또 대테러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테러관련 수사권(사법경찰권)을 부여키로 해, 사실상 이 센터의 구성과 활동에 주도권을 행사할 국정원의 권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테러방지법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에서도 ≪현행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도 테러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 가능하고, 테러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온 법안이다.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다. 몇몇 독소조항을 다듬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새로 만들면서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 2002/02/26

새해맞이 공동행사

1 새해맞이 공동행사, 통일연대 불참속 출발
1 단신 – 여야 테러방지법 통과 합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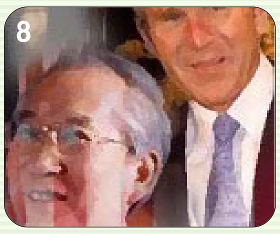
2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1)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세기와 더불어

4 3장 4절 단결의 시위

칭송

6 영광의 노래
6 탁월한 사상이론가, 위대한 영도자, 건설의 영재



한국민족민주전선

7 문무지략을 겸비하신 절세의 위인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25일
8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해야한다
8 특등매국역적 이회창을 매장하자

광고

15 PDF자료집 ≪반통일역적 이회창≫

조국통일3대헌장

16 폭넓은 정치협상, 7.4공동성명 (1)

조선중앙통신

9 주체 91, 2월 24일
10 종자론을 틀어 쥐고 모든 사업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자 – 노동신문사설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1 금수산 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도록 이끄시어

아리랑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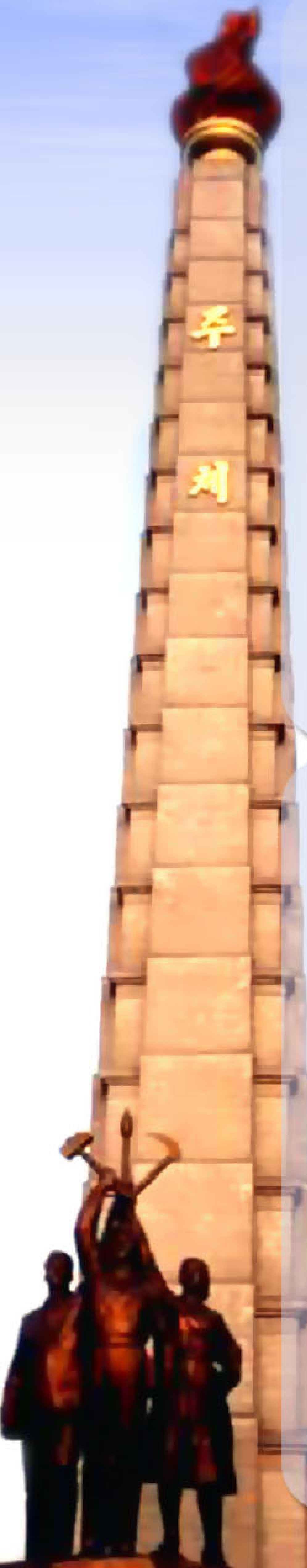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12 새해맞이 공동행사, 계획대로 진행
1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참가 대표단 불허 규탄
12 ≪가뭄에 왠 파업≫이냐더니 편파보도 여전
13 반미(反美)의 위력
13 네티즌들 분노, ≪조선일보≫에 불똥
13 네티즌 사이에 ≪미국제품 불매운동≫
14 부시는 결국 평양 간다
14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우려

운동강좌

15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 (2)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1)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 주체69(1980)년 10월



동지들!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니고 있는 중요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려는 확고 부동한 결의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문제 해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우리 당의 근본립장과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으로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자주, 평화, 통일의 출로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서로 만나 협상할 것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오랜 기간 굳게 닫혀 있던 북과 남 사이의 장벽의 문이 비로소 열리고 남북대화가 실현되였으며 그 결과에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한 조국통일3대 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되였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가 실현되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일보 전진이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민족적 범위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의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용감히 일떠섰습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앙양된 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지연시키고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두 개 조선≫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은 ≪두 개 조선≫을 조작하는 것을 대 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책동하였으며 여기에 저들의 동맹자들과 추종자들까지 적극 동원하였습니다.

미제의 부추김 밑에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민족으로서의 량심도,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민족 앞에 다진 서약도 다 집어던지고 분렬주의로선의 돌격대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조국통일의 기운을 억누르고 민족분렬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대와 경찰,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폭압 수단들을 동원하여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만들어 놓고 조국통일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과 민주 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던 북과 남 사이의 대화를 파탄시켰을 뿐 아니라 미제의 각본에 따라 ≪유엔 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을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실현해보려고 날뛰였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분렬주의적 책동과 매국배족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으며 따라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분렬주의자들의 ≪두 개 조선≫ 조작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남조선 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이 중심과업으로 나서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세력과 분렬주의세력, 민주주의세력과 파쑈세력, 애국자와 매국자 사이의 심각한 대결과 투쟁이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북과 남이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하느냐, ≪두 개 조선≫으로 영구히 분렬하느냐, 민주주의냐, 파쑈냐 하는 투쟁이였으며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나라의 절반땅을 영원히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내여 맡기느냐 하는 투쟁이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의 장애물인 파쑈적 ≪유신≫독재체제를 철폐하고 남조선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궐기하여 용감히 싸움으로써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부산과 마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 줄기차게 벌어진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은 악명 높은 매국노, ≪유신≫독재의 원흉을 파멸시키고 그 잔당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리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수많은 인민들이 일제히 떨쳐 일어나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운 광주 인민들의 영웅적 봉기는 남조선의 파쑈통치 기반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분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매우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지난 해 ≪10월 사건≫ 이후 음모적 방법으로 권력을 틀어쥔 군사파쑈분자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남조선 전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비롯한 온갖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악명 높은 이전의 독재자들도 감히 하지 못하던 폭압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습니다.

남조선의 군사파쑈악당들은 이른바 ≪한미련합군사령부≫의 지시 밑에 중무장한 괴뢰군부대들을 동원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떨쳐나선 광주의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하였습니다. 또한 군사파쑈악당들을 모조리 잡아가두고 ≪내란음모죄≫요, ≪반공법 위반죄≫요 하는 여러 가지 죄명을 날조하여 악랄하게 처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은 대중적 살육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20세기 말기의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습니다.

남조선의 현 군사파쑈분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폭압만행은 그 야수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파쑈독재자들을 훨씬 뛰여넘고 있습니다. 력사는 아직 남조선의 군사파쑈통치배들과 같이 한꺼번에 수천 명의 동족을 총칼로 살육하고 정치적 반대파들을 잔인하게 처형한 인간백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5년 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남조선의 독재자들을 부추겨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 왔습니다. 남조선의 매국배족적인 력대 독재자들을 비호하여온 미국은 오늘도 이전 독재자의 파쑈화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남조선의 새로운 군사파쑈독재자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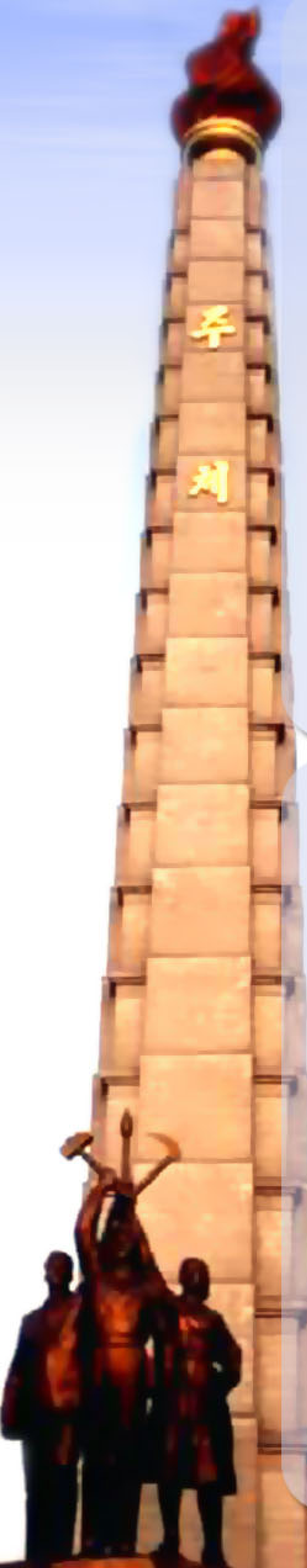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지금 세상 사람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남조선 군사파쑈분자들의 만행은 다 미국의 조종과 비호 밑에 감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애국적 봉기자들에 대한 야수적 살육만행을 지휘한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도록 부추긴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 ≪정권≫을 조작하고 인간백정을 그 우두머리 자리에 올려 앉힌 조종자도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하여 겉으로는 ≪유감≫이요, ≪우려≫요 하면서 아닌 보살하지만 결코 침략자의 속심과 파쑈교형리의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교살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의 배후조종자입니다. 미국은 그 어떤 교활한 술책으로써 남조선에 오늘과 같은 포악한 군사파쑈 독재정권을 조작하고 치떨리는 류혈참극을 빚어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사태와 남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재난은 곧 전체 조선민족의 불행이며 이것은 다름아닌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이 가져온 가슴아픈 결과입니다. 한민족의 피줄을 이어받은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민족의 장래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 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겨레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비극을 끝장내야 하며 우리 민족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분렬은 예속과 망국의 길이며 오직 통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남북조선인민들과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고 분렬을 지속시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두 개 민족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지켜내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세력권 쟁탈을 위한 렬강들 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날로 격화되여가고 있습니다. 력사는 렬강들이 세력권을 넓히기 위한 싸움을 벌릴 때마다 그 과정에 작은 나라들이 리익을 침해당하고 희생물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리해 관계가 복잡하게 엉키고 열강들 사이의 군사적 대결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때에 우리 민족은 또다시 외세의 희생물로 식민지 노예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렬강의 리해 관계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롱락당하고 우리 겨레가 망국노예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여야 합니다.

분렬은 예속과 망국의 길이며 오직 통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남북조선인민들과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오늘과 같이 민주주의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가혹한 군사파쑈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이룩할 수 없으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적인 악법들을 폐지하고 모든 폭압통치 기구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유신체제≫를 청산한 기초우에서 군사 파쑈 ≪정권≫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장력이 서로 대치하여 있으며 남조선에서는 수만 명의 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군사파쑈분자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언제나 긴장성을 띠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정세가 긴장하고 첨예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나라 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상쟁을 피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념원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가시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북과 남이 서로 총을 겨누고 맞서 있으며 동족상쟁의 위험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북과 남 사이의 그 어떤 접촉과 대화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민족의 진정한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과 미국 사이의 대화를 실현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할 데 대하여 미국에 이미 여러 차례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제의는 조건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정당한 발기이며 이것은 미국 인민들의 리익과 념원에도 전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평화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미국에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우리의 이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그들의 명백한 대답으로 될 것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받아들이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거함으로써 미국 인민을 포함한 세계 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두 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시키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야 합니다.

미국의 ≪두 개 조선≫조작책동은 오늘 우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기본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두 개 조선≫을 조작하여 단일 민족인 우리 민족을 영구히 둘로 갈라 놓으려는 미국의 분렬정책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 남조선 군사파쑈분자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는 미국의 내정간섭정책은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조선의 통일을 저애하고 있으며 그것은 조선인민과 미국인민들 사이의 관계 발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분렬주의적인 ≪두 개 조선≫정책을 더는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파쑈분자들을 비호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간섭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북과 남 사이의 무력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빠르고 확신성 있는 조국통일 방도를 찾아야 하며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그것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해방 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 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여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1권 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5. 단결의 시위

조직이 꾸려지고 늘어나는데 따라 우리는 실천투쟁에 들어갔다.

그 서막으로 된 것이 1928년 여름에 있은 길림육문중학교동맹휴학이였다.

그때까지 육문중학교에서는 식당과 재정 관리, 도서관 운영에 이르기까지 학교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진보적인 교원들과 학생들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따라 순조롭게 풀어나가고 있었다. 교내에서의 우리의 활동도 큰 구속을 받지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되였다. 이것은 육문중학교 학생들이 학교교무위원회와의 협동밑에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열매였다.

그런데 군벌들의 조종을 받고 있던 반동교원들은 교직원, 학생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정착된 이 민주주의적질서를 조금도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이 질서를 파괴하고 학교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들의 의사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였다.

교육청이 파견한 육문중학교 교원들가운데는 후각이 예민한 군벌의 앞잡이들이 있었다. 교무주임, 훈육주임, 체육주임과 같은 반동교원들은 모두 적의 특무기관에 매수된자들이였다. 그들은 군벌정권을 추종하는 지주, 관료 출신의 보수적인 학생들과 불량청년들을 내세워 학생들의 사상동향과 혁명조직들의 움직임을 무시로 내탐하였다.

1928년 여름에 우리는 교내에서 일제의 강도적인 제2차 산동출병과 제남에서의 학살만행을 규탄하는 대중적인 항의운동을 매일과 같이 벌이였다.

산동출병은 다나까의 대중국외교의 시금석으로 불리우고 있은 주요한 사건이다.

일본이 산동지방에 처음으로 출병한 것은 1927년 5월 다나까 기이찌내각이 성립된 직후였다. 그때 장개석의 국민혁명군은 장작림의 봉천군을 추격하여 산동반도일대에 진출하고 있었다. 다나까내각은 북벌군의 진격으로부터 자기들의 손때를 묻혀가며 길들인 장작림군벌을 옹호하기 위하여 일본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려순주둔군 2,000명을 청도에 파견하였으며 그후 다시 본토에서 2,000명의 증원군을 뽑아 산동지방에 파병하였다.

1차 출병으로 북벌이 정지되고 장개석이 산동지방 일본거류민들의 생명재산의 안전을 담보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그해 가을에 산동에서 철병하였다.

그러나 1928년 봄에 북벌혁명이 재개되자 파쑈적인 다나까내각은 2차로 출병을 결정하고 천진주둔군과 본토의 구마모도사단 5,000명을 동원하여 산동반도의 철도연선들을 차지하고 청도와 제남을 점령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장개석의 국민혁명군도 제남에 입성하였다. 두 나라 군대사이에는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일본점령군은 제남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3차에 걸치는 일제의 파렴치한 산동출병은 조중인민들속에서 배일감정을 폭발적으로 야기시키였다. 일본국내에서도 강력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다나까외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이 산동에 군대를 파견한 최종적인 목적은 만주와 화북 지방을 중국에서 떼내여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탱점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장작림이였다. 장작림을 잘 길들이고 후원하면 만주를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사람들의 타산이였다. 제남에서 울린 총소리는 후날 중국땅에서 수천수만명의 인명을 앗아가게 될 야수적인 대도살을 예고하는 위험신호였다. 일제가 출병의 구실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거류민까지 서슴없이 학살할 때 중화민족은 그들이 장차 자기들에게 어떤 재난을 강요하리라는 것을 예감하였다.

우리는 일제의 침략정책과 국민당의 반역행위를 폭로하는 강연회, 웅변대회, 성토대회를 련이어 열고 학생들의 기세를 돋구었다.

반동교원들은 그것을 공산주의선전이라고 하면서 탄압의 구실로 삼았다. 그들은 도서관을 불의에 습격하여 진보적인 도서들을 회수해가지고 가서는 마치 큰 단서라도 잡아쥔 것처럼 조선학생들을 다 퇴학시키라고 리광한 교장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조선학생들은 공산주의주동분자가 아니면 ≪일본간첩≫들이고 중국교원들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고서는 소란스러워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였다.

우파계렬의 학생들은 이에 장단을 맞추어 학교에 세워진 민주주의적 질서를 제멋대로 위반하면서 진보적 학생들을 모욕하고 교장과 선진적인 교원들을 비방중상하였다.

상월선생도 그자들의 첫째가는 공격대상이 되였다.

반동교원들과 그들의 조종을 받는 학생들의 무례한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두고서는 학문연구도 청년운동도 마음놓고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조직된 력량으로 반동교원들을 몰아내고 교내에 세워진 민주주의적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발동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였다.

첫째, 학생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것.

둘째,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과목들에 대한 수업을 보장할 것.

셋째, 진보적 교원들과 교장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것.

진보적인 교원들도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사회적 힘을 개입시키겠다고 성공서에 압력을 가하였다. 반동교원들을 쫓아내라는 삐라와 격문들이 시내도처에 나붙었다. 그런 선전물들은 반동교원들의 숙고와 성공서에도 날아들었다.

육문중학교안에서 동맹휴학이 고조되자 시내의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에 호응할 태세를 보이며 성공서에 압력을 가하였다.

성공서에서는 동맹휴학이 온 시내에 파급될 기미가 보이자 하는 수 없이 훈육주임을 비롯한 반동교원들을 파면시키고 우리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였다.

이것은 우리가 대중투쟁에서 얻은 첫 승리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과녁을 똑바로 정하고 군중을 잘 조직동원하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얻었다.

동맹휴학에서 첫 승리를 얻고나니 경험도 생기도 단련도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년학생들이 우리를 더욱 믿고 따르게 되었다.

우리는 동맹휴학에서 얻은 성과를 총화하고 앙양된 청년학생들의 기세를 보다 큰 규모의 적극적인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할 준비를 하였다.

오래전부터 만주침략의 준비를 서두르던 일제의 책동은 이시기에 와서 더욱 로골화되였다.

1928년 5월 일본관동군 사령관 무라오까는 중국관내에서의 정세변화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혼성 제40려단을 봉천(오늘의 심양)에 진출시키고 자기네 군사령부를 그곳에 옮길 것을 획책하였다. 련이어 베이징으로부터 봉천으로 돌아오는 장작림을 봉천입구의 남만철도와 경봉철도가 교차되는 철교에서 렬차폭파사건을 조작하여 살해하였다. 이것은 다 만주침공의 구실을 얻기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예비작업이였다.

일제가 만주를 먹게 되면 중국 동북지방을 투쟁무대로 삼고 있은 우리의 활동에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만주가 중국땅이기 때문에 일제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자들을 마음대로 어쩌지 못하였지만 만주가 강점되는 날에는 문제가 달랐다.

세차례에 걸치는 산동출병으로 장개석을 제압하고 중국대륙에 촉수를 깊숙이 뻗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침략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착착 진척시키는 한편 그 준비작업의 한 고리로서 오래전부터 추진시켜온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완공하려고 서둘렀다. 길회선이란 만주의 성소재지 길림과 조선의 북부국경도시 회령사이를 련결하는 철도를 말한다.

일본이 길림-회령사이에 철도를 강제로라도 부설하여야겠다는 야심을 품은 것은 명치시대부터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 철도에 거대한 전략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다나까내각은 이른바 ≪동방회의≫라는 것을 한 다음 천황에게 낸 ≪상주서≫에서 길회선철도부설을 비롯한 만몽철도의 의의를 두고 일본의 대륙정책의 열쇠라고 지적하였다.

구라파에서 처음으로 세계제패론을 고창한 히틀러의 ≪나의 투쟁≫과 같이 세계제패의 야욕과 망상으로 일관된 악명높은 이 ≪상주서≫에서 제기된 일차적인 국책이 만몽을 침략하는 것이며 이 침략을 보장하는 선결적인 공간이 다름아닌 길회선철도를 포함한 만몽5철도부설에 있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은 사실이다.

哈爾賓學生團體 吉會線反對高潮 九日警官隊와衝突 百四十八名負傷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
동아일보의 보도

이 ≪상주서≫에서 다나까는 만약 길림-회령 철도를 비롯한 만몽5철도가 완성된다면 전만주와 조선을 련결하는 대우회선을 얻게 되고 북만주로 통하는 직통선을 얻게 되므로 병력과 필요한 전략물자들을 아무데나 다 보낼 수 있고 조선의 민족해방운동까지도 탄압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일본의 영악한 두뇌들은 길회선이 완공되어 군대와 화물을 쯔루가-청진-회령-길림으로 수송하게 되면 로정도 줄일수 있고 군대와 물자의 기동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제가 길회선철도건설을 국책으로 선포하고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도 무려 26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을 들여 그것을 끝끝내 완공한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중국의 광범한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부패무능한 청조말기의 관리들과 맺은 부당한 조약을 구실로 삼아 만주땅에서 철도부설권을 제멋대로 행사하는 것을 중화민족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였으며 외자차입에 의한 철도부설협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그것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대중적으로 궐기하였다.

그러나 반동군벌들은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대신 돈도선건설을 강행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1928년 11월 1일로 예정된 길돈선철도개통식을 성대히 하여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실력투쟁이 필요하였다. 이런 투쟁은 적들에게는 조중인민이 만주강점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종으로 될 것이며 광범한 대중에게는 일제의 만주침공을 반대하는 항쟁의 신호로 될 것이였다.

우리는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일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1928년 10월상순 북산공원의 약왕묘 지하실에서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하였다.

그 회의에서는 투쟁과정에 내들어야 할 구호와 투쟁방법, 행동방향을 토의하고 구체적인 분공조직도 하였다.

시위에 들고나갈 프랑카드와 성토문, 삐라에 담을 내용도 상세하게 토론하였다.

우리는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반드시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으로 되어야 한다는 립장으로부터 삐라, 성토문, 프랑카드를 비롯한 모든 선전물들을 조선글로도 쓰고 중국글로도 쓰기로 하였다. 거리에서 하는 선동연설도 두 나라 말로 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투쟁기간 시내 각 학교들에 조직되어있는 학생 자치회와 류길학우회, 소년회와 같은 합법적 조직들을 많이 발동시키고 공청이나 반제청년동맹과같은 비합법적 조직들은 될수록 표면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북산에서 회의를 한 후 우리는 시위준비를 위해 밤잠을 잊고 뛰어다니였다.

그때 선전대에 있은 한영애가 수고를 많이 하였다.

한영애는 류길학우회 성원으로 있을 때 연예공연과 독서발표모임을 통해 우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공청원으로 성장한 길림녀자중학교 학생이였다. 온순하고 말수더구가 적어 보통때에는 어디에 있는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처녀였다.

하지만 한영애는 혁명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천한 일, 어려운 일을 가리지 않았다. 연예공연때에는 남들이 담당하기 싫어하는 역을 자진하여 맡아나섰고 독서회에서 교재가 필요할 때에는 수백페지나 되는 책을 자발적으로 등사하여 동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한영애는 시위투쟁준비를 위하여 밤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그는 남의 집 허청간에 등사기를 옮겨다놓고 몇명의 소년회원들과 함께 격문과 삐라를 수만매나 찍어냈다. 가두에서는 수백명의 청중들을 앞에 놓고 조선말과 중국말로 열화같은 연설을 하여 녀성웅변가로 유명해졌다.

내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책임자로서 중국의 청년학생들한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은 것은 우리가 길림에서 일찍부터 공산주의운동의 기치를 들었기 때문이였다. 우리가 공산주의운동을 시작하던 그때로 말하면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조차 생기지 않았을 때였으며 길림시내에 공청원이 얼마 없을 때였다.

나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사업을 하면서 중국계통으로도 공청사업을 하였다. 공청조직에서 우리가 책임적인 역할을 하다나니 많은 중국청년들이 우리를 따랐다. 길림사범학교 공청소조책임자였던 조아범이나 돈화지구에서 공청사업을 맡아하던 진한장도 우리와의 련계밑에 공청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였다.

시위준비를 다그치던 우리는 철도당국자들이 1928년 11월 1일 길돈선철도개통식을 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를 얻게 되였다.

우리는 시위시작날자를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며칠 앞당기였다. 그것은 길회선철도부설반대의 봉화를 올리면서 동시에 길돈선철도개통식도 파탄시키자는 것이였다.

1928년 10월 26일 새벽 선전대는 날이 새기전에 길림의 거리들에 삐라를 뿌리고 격문을 붙이였다. 2~3명으로 무어진 소년회의 감시조들도 날이 밝자 지정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날 아침 각 학교의 학생들은 약속된 시간에 일제히 교정에서 모임을 가지고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성토문을 발표한 다음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거리는 삽시간에 수천명의 학생들로 차고넘치였다. 그들은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자!≫,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여 투쟁하자!≫는 조선글로 된 프랑카드와 ≪타도일제≫, ≪타도 매국노≫, ≪회수길회선≫이라고 중국글로 쓴 프랑카드들을 들고 거리를 누비면서 신개문밖에 있는 성의회마당으로 모여들었다.

吉敦線延長其他
吉林排日險惡化

당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보도한 출판물자료

수백명의 군대와 경찰이 대렬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다. 군경들과 맞다든 대렬은 구호만 웨치면서 우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시위대렬을 앞으로 전진시켜야 했다.

우리는 시위군중을 보위하기 위하여 로동자들과 시주변의 농민들, 학생들로 조직된 규찰대를 발동시키였다. 대렬은 규찰대를 선두로 어깨를 겯고 군경들의 총검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갔다. 성의회마당에서는 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나는 광장에 모인 수천명 군중들에게 조중청년학생들은 단결하여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모임을 끝낸 군중은 더욱 기세충천하여 일본령사관이 자리잡고 있은 신시가쪽으로 행진해갔다. 평시에는 령사관경찰의 행패가 심해서 좀처럼 발길을 돌리지 않던 곳이였다. 일본령사관앞에서 반일구호를 힘있게 부르며 기세를 올린 시위군중은 대마로, 북경로, 중경로, 상의가 등 길림의 여러 거리를 뒤덮으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길림의 시위투쟁에서 타격을 받은 일제의 철도회사는 길돈선철도개통식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일본장사군들은 상점을 버리고 자기들의 령사관으로 도망쳐들어갔다. 남만철도회사에서 운영하는 동양병원의 유리창도 박살났다.

시위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었다.

학생들은 여러개 조로 나뉘여 시내 십여개소에 연단을 설치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가두연설을 하였다.

길림에서 시작된 반일투쟁은 만주전지역에 번져갔다. 장춘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우리의 투쟁에 호응하여 타도제국주의와 6대철도반대 구호를 들고 치렬한 투쟁을 벌이였다. 그들은 길장철도국장의 집도 습격하였다.

할빈과 천진에서도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결사적인 련대투쟁을 벌이였다.

연길지방 조선동포들도 떨쳐나섰다. 국내의 신문들도 우리의 투쟁을 련일 보도하였다.

시위가 점점 더 큰 규모로 확대되었을 때 우리는 일본상품 배척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군중은 일본인상점들에서 일본상표가 붙은 상품들을 거리에 끌어내다가 모조리 불태워버리였다. 어떤 상품들은 송화강에 무데기로 쓸어넣었다.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일본상품배척투쟁과 결합되어 전면적인 반일투쟁에로 점점 더 크게 번져가는데 당황한 일제는 반동군벌을 사촉하여 시위군중에게 총을 마구 쏘아대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게 하였다.

그때까지 우리는 반동군벌들을 견제하는 립장에 서있었다. 그러나 군벌당국이 일제의 편을 들어 우리를 탄압해나서는만큼 우리도 그들을 견제하는 립장에만 서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일제와 결탁한 반동군벌타도≫의 구호를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례식과 결합된 보다 대규모적인 시위로 넘어갔다. 이날의 시위는 많은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최대의 규모를 이루었다.

투쟁은 무려 40여일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일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봉천에 체류중이던 장작상을 다급히 불러들이였으나 길림독군서의 회유무마책으로써는 대중의 고조된 투쟁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으로 하여 일제가 받은 타격은 컸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조중인민이 단결하여 일제의 만주강점에 항거해나선 것이였다.

민족주의자들과 일제의 침략에 겁을 먹고 도망칠 궁리만하던 사람들도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청년학생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아왔었다. 그런데 10대, 20대의 청년학생들이 자기들로써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큰일을 해제끼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였다. 그때부터 그들은 민족해방투쟁무대에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 세대의 참신한 세력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통하여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되었으며 대중을 옳게 조직하면 그 어떤 총칼로도 꺾을 수 없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대중의 힘에 대한 나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다. 대중에 대한 우리의 령도방법도 이 투쟁을 통해 더욱 세련되었다. 실천투쟁속에서 나도 단련되고 조직도 성장하였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

송시

영광의 노래

2월이 왔습니다
2월이여도 유달리 뜻깊은 임오년 2월

엄동설한 강추위속에
꽁꽁 묶였던 계곡의 물들이
골마다 소리치며 흐르는 새봄

얼어들었던 이 가슴에도
따사로운 봄빛스미여
기쁨이 샘솟아 출렁입니다

봄들판엔 아지랭이 아물거리고
마음들엔 희열이 솟구치는
아, 경사로운 2월 16일이여

지나가는 그 누구를 보아도
그저 웃음이 어리어 밝게 보이고
그 어디를 둘러봐도 소생의 의지 솟구쳐

기쁨에 희망을 더해주고
생각에 낭만을 더해주는
뜻깊은 2월의 새봄이여

이 날 있어 우리의 마음엔
벌써 화창한 봄이 피어나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이 펼쳐지노니

감사의 뜨거움속에
하늘 가득 땅 가득 어려오는 햇빛같은 그 미소
아, 존귀하신 그 모습

2월에 탄생하신 장군님
그 이름도 태양이신 장군님 모시어
이남의 우리들도 희망찹니다

민족의 높은 존엄주시고
부푸는 높은 긍지 주시는
민족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이시여

2월의 환희속에 우리 벌써
능라도의 아리랑구경을 가고
단풍 든 금강산 묘향산을 갔고
남북이 하나로 얼싸 안습니다.

오늘의 영광을 노래하니
샘솟는 기쁨 부푸는 긍지 다합쳐
장군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여 온 겨레 함께 맞는
민족최대의 명절의 노래
오늘의 우리 노래로 영광의 노래

민족의 태양이시여 영광을 받으시라
천만년 영광을 받으시라
영광! 영광! 영광을 드리옵니다

흠모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사상이론가, 위대한 영도자, 건설의 영재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토고 골프도 아고이시에서는 3일 문화행사주간개막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행사에는 골프도장관을 비롯한 도의 책임일꾼들과 출판보도계 인사들, 수많은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골프도장관은 개막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돌에 즈음하여 자기 도에서 문화행사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가장 탁월한 사상이론가, 영도의 천재, 위대한 실천가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한편 인도 가지아바드 자력갱생학술연구회에서는 1월 29일 우리 나라 방문자들의 인상발표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학회성원들과 함께 가지아바드종합대학 교수, 박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나라 방문자들의 방문인상이 발표되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조선방문기간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는 탁월한 사상이론가이시며 위대한 영도자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은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나라이며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단결되어 있기때문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굳건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 조선인민은 그이를 높이 존경하고 있으며 그이께 충성 다할 결의에 넘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의 기간에 앙골라와 콩고의 브라자빌시우엔제구역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상영주간개막행사가, 수단청소년궁전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상영 및 도서, 사진전시주간개막행사가, 말리 바마코문화회관에서는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주간개막행사가, 나아지리아 라고스주이그보비전문학교에서는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가, 라고스주 아요따예술쎈터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나미비아수도에 있는 빈드후크경비대와 호위대대, 코트디부아르 민주당 청년동맹 아비장시 꼬꼬디구역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베냉 꼬또누 제3구역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주체사상탑≫, ≪새조선≫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말리인민구국과도위원회 위원인 우마르와게는 영화와 사진을 보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사상이론가, 건설의 영재이시라고 강조하였다.

나미비아수도에 있는 호위대대 대대장은 영화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영도의 천재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인민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시었다. 조선중앙통신사 당원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에 대한 그이의 회답서한의 구절구절은 실로 감동적이다. 그이께서는 조선해방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투사들의 넋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혁명열사릉건설을 발기하시고 지도하시었다. 이런 영도자를 그 어디에서 찾아보겠는가.

문무지략을 겸비하신 절세의 위인

구국의 소리 2.16특집방송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문무를 겸비하신 천재중의 천재, 다재다능의 영재로 명망이 높으신데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 책임간부에게 남녘동포들이 **김정일**장군님께 세상에 으뜸가는 문관이고 손꼽히는 무관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말이 옳다고 찬동하시면서 **김정일**장군님은 문무를 겸비한 지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건설의 지적능력인 문식과 전쟁수행의 지적능력인 무략은 엄연히 구별되는 서로 다른 분야인 것으로 해서 정신적, 물적 부를 창조하는 여러 지식을 겸비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문무를 다같이 겸비한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문관이 자기가 맡은 특정분야에 정통하면 명관이라고 하고 무관이 군사에 능통하면 명장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에는 이름을 남긴 철학자, 과학자, 문인, 명장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다 목수는 대장장이가 아니다 이런 말이나 군별을 짚는 대목도 문감은 못된다 이런 말과 같이 어느 한 분야만을 정통했고 문무를 다같이 겸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그 어느 명관이나 명장과도 대비조차할수 없는 문무를 완전무결하게 겸비하신 신통한 위인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문, 모든 분야, 철학, 정치경제학, 역사학, 문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모든 학문, 심지어 최첨단 과학기술문제들에까지 전문가들도 감탄할만큼 해박한 지식과 견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지식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그야말로 백과전서적인 지식입니다. 그분께서는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로 인류사상이론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적 개념과 원리와 체계, 모든 철학사조들에 관해 정통하셨습니다. 특히 그분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로 독창적으로 정리하시고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명저들을 저술하시어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는 특출한 공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대학시기에 벌써 주체의 정치경제학은 물론 영국의 고전경제학, 경제사상사에 관해 완전히 터득하신데 기초하시어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등 많은 무게있는 명논문들을 발표하시어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한 정치경제학을 학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셨고 주체의 정치경제학을 발전풍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주체적 입장에서 왜곡된 민족사도 바로 잡아주셨고 민족의 우수한 전통도 빛내어주셨으며 영화예술론, 가극예술론, 음악예술론, 주체의 문학론 등 수많은 저작을 발표하시어 주체의 문학예술이론을 새롭게 정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예술론을 발표하시어 구체적인 건축물의 창작 및 형상에 관한 이론과 지도방법을 확립하셨습니다.

동구권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일제히 붕괴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초래됐을 때에도 **김정일**장군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등 고전적 저작들을 발표하시어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원인과 교훈을 과학적으로 명시하시고 진보적 인류에게 사회주의운동의 올바른 진로를 세워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최첨단 과학기술에도 밝으신 천재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북의 과학원을 비롯한 과학연구단위들을 자주 찾으시어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명석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어느 한 기관에서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프로그램체계를 개발했을때에는 그 수준을 알아보시기 위해 직접 컴퓨터를 조종하시면서 원격으로 검토해보시고 부족점과 극복방법까지 명확히 밝혀주셨다고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이같이 천재적인 사상이론의 거장이실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그 어느 명장이나 전략가도 따르지 못하는 군사적 예지를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십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사와 주체의 전략전술과 전법을 터득하시고 미래의 전쟁, 전략가, 전쟁과 군사, 현대무장력과 그의 조직 등 군사관계서적들을 수많이 탐독하시어 고금의 전쟁사와 병법에 정통하셨습니다. 그분의 군사적 예지는 해박한 군사지식으로 해서 탁월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육해공군의 군종은 물론 통신, 공병 등 군사의 모든 군종, 병종에 완전히 정통하고 계십니다. 또한 군사적 지략에서도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말그대로 천재이십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례를 들수 있겠지만 역사에 총포성없는 15일전쟁으로 기록된 1993년의 북미대결전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알수가 있습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이 고압적인 군사적 위협과 핵사찰소동을 벌이며 이북에 대한 제재와 정치군사적 압력에 광기를 부리던 엄혹한 나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준전시상태의 선포와 핵확산금지조약에서의 탈퇴라는 폭탄선언으로 미국대통령의 담보서한을 받아내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민족을 핵참화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총한방 쏘지않고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연합대적을 무릎꿇게 하신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하고 비범한 군사적 예지에 세인들은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또한 팬타곤의 한다하는 수뇌진들이 오랜 시일을 허비하면서 짠 이북 침략계획인 5027작전계획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하나로 휴지장처럼 날려버리셨습니다.

이 한두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시라는 걸 잘알수 있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이같이 누구도 따를수 없는 높은 경지에서 문무를 완전무결하게 겸비하셨기에 인류정치사에 없었던 독창적인 정치방식인 선군정치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간악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천겹만겹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문무지략을 겸비하신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자긍심을 깊이 새기고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길에 조국의 통일도 민족의 무궁번영도 있는 것입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25일

한나라당 이회창의 망발

한나라당 이회창은 23일 한반도긴장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이니 뭐니 하고 떠들었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망언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정책에 가세해나서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직면하고 한반도정세가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호전광 부시가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군사적 공격을 가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이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고 미국당국자들이 하는 소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은 상전에게 잘보여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이룩해보려는 비열한 수작인 것입니다. 온 국민이 악의 화신 부쉬의 한국행각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회창일당만이 항변 한마디않고 있다가 오히려 부쉬의 대북적대시정책을 두둔하고 촉구해 나선 것은 저들이야말로 매국배족의 무리임을 스스로 드러내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회창망발에 대한 분격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이 호전광 부시의 망발을 그대로 되받아 외우면서 북의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근원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대해 각계에서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회창패거리들의 이같은 수작은 흑백을 전도한 궤변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 땅에 수만명의 침략군과 방대한 핵무기까지 배비해놓고 북을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이 미국의 가공할 위협에 대처해 대응수단을 갖춘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건 한반도에서 대량살상무기문제 등을 산생시키는 주범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진범인도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일 많이 생산, 수출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해 매일매시각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이회창패거리들이 북의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이니 뭐니하는 것은 그야말로 흑백을 전도한 궤변이다. 이건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전쟁의 불구름을 덮씌우기 위해 혈안인 부시집단의 호전적 망발을 그대로 되받아 외우는 민족반역행위가 아닐수 없다. 민족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매국반역행위에 환장한 이회창패거리들을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는 부쉬가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거들고 있는 것은 한반도정세를 긴장시켜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키고 저들의 대량살상무기를 대량적으로 팔아먹기 위한 것인데 이회창패거리들이 ***면서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민족반역의 무리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이회창 한나라당을 지체없이 폭파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미상의점거농성을 테러로 규정

부쉬행정부는 지난 18일에 있은 한총련 대학생들의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을 테러사건으로 규정하고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테러사범으로 몰아 탄압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주한미대사관은 농성투쟁이 있은뒤 회의를 열고 점거농성에 참가한 학생들을 테러사범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검거된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행위는 의로운 반미투쟁에 나선 학생들을 테러범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일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반미투쟁을 힘으로 위협하는 오만무례한 망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한총련 학생들의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은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고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부쉬에 대한 우리 민중의 분노를 과시한 정당한 투쟁이였으며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고 수백만의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 백색테러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할 대신 오히려 의로운 학생들을 탄압하려는 것은 날강도적인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도전적 행위는 우리 국민의 쌓이고 쌓인 반미감정을 폭발시킬 뿐입니다.

구국의 소리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해야한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25일～26일

지금 이 땅의 1300만 노동대중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내외반통일세력의 간악한 도전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지 않는 내외의 반통일세력은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이 땅의 노동대중을 비롯한 우리 겨레의 통일진군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이 땅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북침전쟁책동은 민족자주통일의 최대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미제는 반세기이상이나 이 땅을 가로타고 앉아 우리 민족을 둘로 분열시켜 놓았으며 세기가 바뀌고 한반도에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지금에 와서도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쉬행정부의 출범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도상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부시는 ≪연두교서≫라는데서 북은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느니 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느니 하며 위험천만한 폭언을 늘어놓았습니다.

더욱 간과할수 없는 건 이러한 폭언이 그의 방한을 앞두고 튀어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북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가 아닐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민족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던 우리 민족의 의지를 꺾어놓고 기어코 북침전쟁을 도발해 이 땅을 초토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편승하여 이회창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들과 반통일분자들의 대북대결책동도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할데 관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부정하고 외세와의 공조를 운운하며 한사코 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극악한 반통일역적이며 친미사대매국노인 이회창은 미국에까지 찾아가서 6.15공동선언을 정면으로반대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 매국역적은 미국 고위상전들을 찾아다니며 이북에 대해 변한 것이 없다느니 뭐니하면서 남북관계진전을 반대했습니다. 뿐아니라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망발까지 늘어놓았습다.

이회창은 미국행각에서 돌아와 국회에서 한 대표연설이라는데서도 이같은 망발을 되풀이했습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이 우심한 이러한 정세하에서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수 없고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될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남과 북 사이에 여러 갈래로 진행되던 대화들이 중단되고 한반도에 또다시 대결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반북대결책동때문인 겁니다. 이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주적론과 보안법도 통일의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이북의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주적론과 함께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범죄시하며 통일애국역량을 탄압하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여건에서는 언제가도 6.15공동선언을 이행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이 굳게 단결해서 미국의 침략과 간섭,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수고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대중은 생존권사수투쟁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반미투쟁에로 확고히 지향시켜나가야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요로 우리 노동대중의 삶을 비참한 처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도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가져오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때 제일 큰 피해자는 우리 민족입니다. 결국 우리 노동대중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노동조건이나 개선하고 임금이나 얼마 더 올리는 문제와는 대비조차 안되는 엄청난 그리고 더 사활적인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노동대중은 모든 투쟁을 반미투쟁에로 확고히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당면하게는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 거세게 지펴올려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극악한 민족반역자인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우리 노동대중이 앞장서야 합니다.

우선 이회창의 사대매국행위를 폭로단죄하는 운동을 더 힘있게 벌여야합니다. 이회창은 그 가문부터가 역적의 가문입니다.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사대매국행위는 이회창의 대에 와서는 극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행각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대매국노인 이회창의 죄행을 노동대중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알려 우리 민중이 이회창의 친미사대행위를 똑똑히 알려야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뿐 아니라 민족의 명부에서 영원히 매장해버리기 위한 반이회창을 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벌여나가는 겁니다.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역적을 이 땅에 그대로 놔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할수 없습니다. 이런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가 아직도 백주에 머리를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노동대중은 반이회창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이 땅에서 영원히 매장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통일을 가로막는 주적론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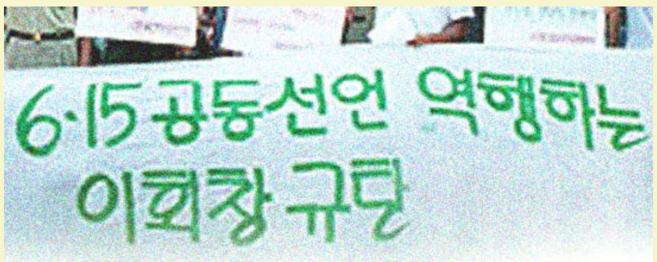
노동대중여러분!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수고 통일의 걸림돌이 제거될 때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이룩되게 됩니다.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기어이 이룩할 의지밑에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서야 할것입니다.

특등매국역적 이회창을 매장하자

노동자 농어민 시간 - 2월 25일～26일



지금 이 땅 각계 애국민중속에서는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매국배족행위에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계시는 장인식씨의 글 ≪특등매국역적 이회창을 매장하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저 개돼지보다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들이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위압에 눌려 물러서거나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파는 역적이 되는 것을 달게 받아들여 삼천리 강토와 500년 정사를 남에게 바치고 2천만 국민을 남의 노예로 만들었으니. 아! 통분하다. 우리 2천만 국민이 노예가 되어 살아야 하는가. 죽어야하는가.≫

이것은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글 ≪시일야방성대곡하여 전국민에게 충고하노라≫의 한 귀절이다.

일제에 의해 을사5조약이 강압, 체결됐다는 소식에 우리 2천만 온 겨레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안겨오고 통곡소리는 아직도 귓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 하다.

을사5적의 매국행위로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값비싼 댓가를 치루어야했다. 그래서 우리 민중은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매국노들을 을사5적으로 낙인하고 천추만대를 두고 저주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회창의 친미사대매국행위는 과거 이완용을 찜쪄먹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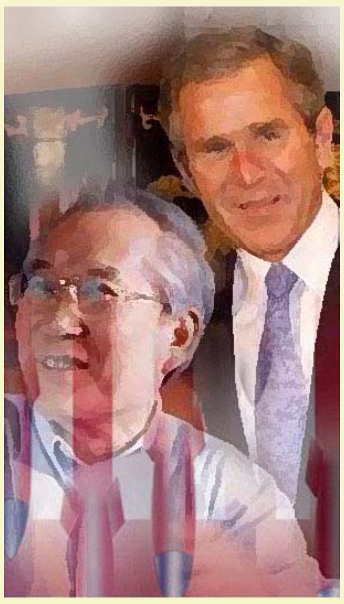
얼마전 국회대표연설에서 한 이회창의 발언은 철두철미 나라와 민족을 등진 반역자, 권력욕에 미친 정신병자의 **하는 망발이였다.

이회창은 이번 망발을 통해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로써 미상전에 대한 철저한 충성심을 만천하에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이에 앞서 바다건너 미국상전에게 찾아가 굽신거리며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고도 모자라 돌아와서까지 매국배족적인 망발을 늘어놓았으니 이를 어찌 용납할수 있겠는가.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찌돼든 오직 상전의 환심을 사 일신의 부귀행각을 누리고 권력욕을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회창과 같은 역적만이 할수 있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죄는 지은대로 가기 마련이다. 이런 매국역적과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우리 노동대중이다. 천하에 둘도 없는 이 역적을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우리 노동대중이다.

이회창과 같은 사대매국노를 그대로 둘때 민족의 최대 숙원인 조국통일도 이룰수 없으며 우리 민족은 더욱더 큰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하다.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민족의 이익을 서슴없이 팔아먹는 특등매국노인 이회창을 이 땅에서 영영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이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서야한다.

죄는 지은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권력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의 이익도 서슴없이 팔아먹는 특등매국노 이회창의 죄행을 우리 민중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25일

김정일총비서를 로씨야신문이 칭송

로씨야신문 ≪웨쩨란≫ 제6호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초상화를 모시고 그이를 칭송하는 글들을 실었다.

신문은 ≪조선인민의 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동지께서는 근 40년간 당과 국가를 령도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시였다.그리하여 그이께서는 조선을 난공불락의 사회주의성새로 만드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1990년대에 나라에 들이닥친 엄혹한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시고 사회주의를 고수하신것은 그이의 가장 큰 정치적공적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그이께서 발표하신 로작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으로 완성된 사회주의리론≫,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테제≫로 불리우고 모든 사회주의옹호자들에 의하여 탐독되고 있으며 사회주의재생운동의 기치로 되였다.

그이의 정치방식 특히 세계 사회계에 ≪**김정일**정치방식≫, ≪사회주의승리의 위력한 보검≫으로 널리 알려 진 선군정치는 세계정치계의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늘 세계 모든 진보적인사들이 조선을 가리켜 사회주의의 보루, 평화의 성새라고 하면서 **김정일**령도자를 ≪21세기의 태양≫으로 칭송하고 그이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고 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신문은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북조선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사람들속에 안겨 진 **김정일**동지에 대한 첫 인상은 예지로 빛나는 안광, 봄날처럼 따스한 미소, 우렁우렁한 목소리, 통이 크고 대범하며 천재적인 기억력과 판단력, 응용력을 지니신 분, 결단력 있는 분, 포용력과 정치적지도력, 수완이 뛰여 난 분이시라는것이였다고 강조하였다.

미대통령과 일본총리사이의 회담은 전쟁모의

로동신문

≪로동신문≫ 25일부는 부쉬의 일본행각은 미국의 침략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지와 장기적인 협력을 받아 내기 위한 전쟁행각이였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미국대통령과 일본총리사이의 회담에서는 주로 경제문제와 ≪안보≫문제가 토의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회담에서 부쉬는 미일안보동맹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로 된다는것을 다시금 강조하였다.그가 말하는 아시아의 ≪평화≫란 미국지배하의 평화를 의미한다.다시말해서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워싱톤의 지시에 고분고분 머리를 숙이는 미국지배의 질서를 세우자는것이다.

회담에서 일본총리는 부쉬가 조선,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위협을 가한데 대하여 전면적인 리해와 지지를 표시하였을뿐아니라 장기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이것은 량자가 같은 전쟁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이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에 적극 추종하려 한다는것을 말해 준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미국의 전쟁정책에 가담협력하여 해외군사팽창야망을 이루어 보려 하고 있다.

이번 도꾜회담은 미일 두 전쟁세력이 아시아침략을 위한 군사적결탁을 강화한 위험한 전쟁모의였다.

전쟁열에 들뜬 미일침략세력이 당면한 공격대상을 조선으로 정한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신성한 조국을 건드리는 전쟁도발자, 침략자는 그가 누구이건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모조리 격멸소탕할것이다.

로작 출판

오스트리아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를 14일 윈에 있는 요제프 게바우에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주체79(1990)년 10월 3일에 발표된 이 로작에는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라는데 대하여서와 조선로동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 등이 밝혀 져 있다.

여러 나라에서 부쉬의 ≪악의 축≫론을 배격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 11일부에 의하면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이 신문사 기자와의 회견에서 미국이 조선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한데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15일 카나다대통령과의 상봉 때 다시한번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꾸바내각수상 까스뜨로는 최근 국제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란, 이라크가 미국을 ≪위협≫한다고 하는것은 ≪웃음거리≫이며 그것은 저들의 세계제패의도를 가리우기 위한것이라고 까밝혔다.

에스빠냐수상 아쓰나르는 17일 도이췰란드잡지 ≪슈피겔≫과의 회견에서 부쉬의 ≪악의 축≫론과 거리를 둘 립장을 표명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외교구상≫에 대해 론의할 때가 왔다고 말하였다.

한편 19일 우크라이나외무성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무게 있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개별적인 나라들을 ≪악의 축≫으로 선포하는 미국의 립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뽈스까좌익급진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볼레스와브 야슈츄크는 14일 항의문에서, 뽈스까로동계급당 창당그루빠 위원장 스따니스와브 오그니크는 15일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대통령의 발언은 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본심은 사회주의나라 조선을 압살하려는데 있다고 까밝히였다.

≪아리랑≫ 창조사업

지금 평양에서는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창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창조집단은 부문별 훈련을 마치고 종합훈련단계에 들어 갔다.

대공연이 진행될 5월1일경기장은 출연자들의 드높은 훈련열기로 끓어 번지고 있다.

평양시민들과 전국각지 인민들과 군인들 그리고 해외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무격려를 보내오고 있으며 희세의 걸작품으로 빛날 대공연을 보게 될 그날을 손 꼽아 기다리고 있다.

아래는 ≪아리랑≫과 관련한 반향.

꼭 보고 싶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이 벅차 오른다.꿈 같은 황홀경이 금시 눈앞에 펼쳐 지는것만 같다.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속에 한껏 넘쳐 난다.

나라 잃은 지난 날 조국땅에서 더는 살래야 살수 없어 눈물의 아리랑을 부르며 태 묻은 고향을 등지고 거치른 이국땅에 삶의 닻을 내린것이 우리 해외동포들이다.

우리는 남의 나라땅에서 살면서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조국이 그리울 때마다 노래 ≪아리랑≫을 조용히 불러 보군 하였다.

이번에 조국에 와서 생각되는것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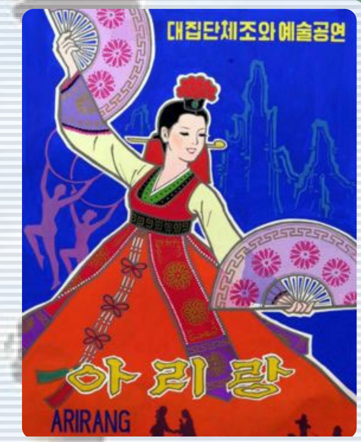
조국은 정말 눈 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그 옛날 우리 민족이 부르던 눈물의 아리랑이 오늘은 행복의 아리랑, 강성대국아리랑으로 울려 퍼진다.이 력사적인 내용을 담아 조국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최상의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예술의 나라이다. 아마 세계최대걸작, 인류문화사의 재보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완성될것이다. 꼭 보고 싶다.(재일조선인예술단 김경화)

기다리는 그날

며칠전에 우리 집으로는 일본 나가노현에서 사시는 김지곤할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다.

온 세상을 경탄시키는 희한한 공연으로 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나와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는 동생 영옥이까지 참가하니 기쁘기 그지없다고 하면서 공연을 보러 평양으로 꼭 오시겠다는것이다.



20대 꽃 나이에 눈물의 아리랑을 부르면서 현해탄을 건너 갔던 조부모님들이 80고령의 오늘은 행복의 아리랑을 부르는 손자들이 있는 조국으로 온다면서 감동을 금치 못해 하였다.상봉의 그날이 손 꼽아 기다려 진다.

5월1일경기장의 환희로운 무대에서 나는 그리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고모내외분들과 기쁜 상봉을 하게 될것이다.강성대국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얼싸안고 춤 추며 돌아 갈 상봉의 그날이 눈앞에 선히 어려 와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인다.

우리의 이 공연은 7천만 겨레에게 크나큰 희망과 포부, 새힘과 용기를 안겨 주게 될것이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 김진옥)

종자론을 틀어 쥐고 모든 사업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1월 25일부 사설

오늘의 시대는 주체위업완성의 자랑찬 력사가 펼쳐 지는 격동적인 시대이며 이 땅우에 **김정일**강성대국이 일떠서 위용 떨치게 될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이다. 우리 조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 비약과 혁신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 당의 종자론을 창조와 변혁의 힘 있는 무기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서 종자론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종자론은 창조와 건설에서 종자가 기본이며 종자가 모든 사업의 성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밝힌 독창적인 사상리론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모든 사업에서 핵으로 되는 종자를 발견하시고 창조와 변혁의 위력한 무기인 종자론을 창시하시였다. 무슨 일에서나 대상의 본질적특성을 띠는 핵을 바로 찾아 쥐는데 성공의 열쇠가 있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종자론은 이 땅우에 로동당시대의 대전성기로 불리우는 창조와 변혁의 폭풍을 안아 왔다.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비약이 이룩되여 문학예술혁명이 빛나게 수행된데 이어 당사업과 경제사업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 났다. 종자론은 주체혁명의 전면적개화기를 펼쳐 놓은 위대한 창조의 원동력으로 되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종자론을 창시하시여 조국건설사에 특기할 거창한 변혁의 시대를 개척하시고 인민들에게 새 세계, 새 기적창조의 위력한 무기를 안겨 주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공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종자론의 견인력과 변혁적의의는 세기가 바뀔수록 더욱 커가고 있다. 종자론과 같은 창조와 비약의 보검을 가지고 21세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인민처럼 힘 있고 긍지 높은 인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위대한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손길아래 자라난 세대답게 모든 사업에서 종자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전면적으로 꽃 피워 나가는 보람찬 진군길에 들어 섰다. 오늘의 진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진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래동안 우리 혁명을 령도하여 오시면서 마련해 주신 불멸의 업적과 전통은 주체혁명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게 하는 한없이 고귀한 재부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미전에 내놓으신 종자론과 같은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일관성 있게 관철해 나갈 때 우리는 지난 20세기 70년대, 80년대와 같이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21세기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위업완성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종자론을 더욱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는것은 더 높이, 더 빨리 전진해 나가는 새 세기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다. 력사에는 아직 21세기와 같이 과학과 경제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과 같이 그 창조와 변혁의 폭과 심도가 비길데 없이 거창한 국가건설목표를 내세운 당과 인민도 없었다. 새로운 비약의 시대는 우리 식의 창조와 변혁의 무기를 요구한다. 그것이 다름아닌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종자론이다.

모든 사업에서 근본핵을 틀어 쥘데 대한 우리 당의 종자론은 이 땅에 세기적인 비약과 기적을 아로새기게 하는 우리 식의 투쟁과 창조의 방법론이며 21세기의 미래에로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게 하는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무엇을 하나 내놓아도 세계적인것, 몇십, 몇백년이 흘러도 생명력을 가지는 가치 있는것을 창조하려는 대담성과 혁명성, 슬기와 기백이 우리 당의 종자론에 맥박치고 있다.

우리 당의 종자중시사상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변시키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경제를 건설해도 그 성과를 좌우하는 핵, 종자를 찾아 쥐고 빠른 기간에 현대화, 정보화된 21세기 경제를 건설할수 있는 비결이 종자론에 있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도 하나를 통하여 그 전반을 틀어 쥘수 있는 핵을 찾아 내여 첨단과학의 봉우리를 점령해 나갈수 있는 방법론적지침도 종자론에 있다. 어느 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종자론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갈 때 우리는 세기를 주름 잡는 비약의 속도로 내달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가까운 앞날에 현실로 꽃 피울수 있다.

우리 당의 종자론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는것은 모든 사람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당이 밝혀 준 종자론은 사람중심의 창조와 변혁의 리론, 먼저 사람을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 나가는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혁명적인 리론이다.

.....

지난 시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펴 주신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재능 있는 창작가, 예술인들로 자라나고 속도전의 불바람속에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한 시대의 영웅들이 수많이 자라난 현실은 종자론이야말로 사람들을 창조의 영웅으로 키우는 귀중한 보검으로 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는 창조의 능수, 창조의 영웅들을 요구한다.

새 세기의 봉화를 지펴 올린 라남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선군시대의 기적과 혁신의 창조자로 자라날수 있은것도 우리 당의 종자론의 요구대로 끊임없이 사색하고 사업에서 근본핵, 종자를 면바로 찾아 쥐고 일을 완강하게 내민데 있다.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도 당이 준 과업을 최단기간내에 수행할수 있는 근본핵을 찾아 쥐고 완강하게 내미는 창조적인 투쟁기풍,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서나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나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는 방법론을 탐구하는데 선차적힘을 넣고 종자를 틀어 쥔 다음에는 속도전, 전격전으로 일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는 진취적이며 대담한 일본새, 대중과 현실을 잘 파악하고 제때에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 잡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대여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 일으키는 힘 있는 당정치사업, 여기에 라남의 기적이 창조되게 된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다.

사람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인 안목과 진취적인 사업기풍,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를 지닌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드는것이 종자론, 종자중시사상이다. 종자 그자체가 새것이고 종자의 발견은 곧 혁신적안목이며 종자를 창조하고 꽃 피우기 위한 투쟁은 진취적인 사업기풍,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를 지닌 인간의 투쟁이다. 종자론만 틀어 쥐면 새것과 낡은것을 정확히 식별할줄 알고 앞을 내다보며 사업을 설계하는 혁신적안목도 생기고 언제나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새로운것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창조의 영웅으로 될수 있다. 새 세기를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색하고 창조하는 열정의 인간,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수 있는 열쇠가 종자론에 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는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떨쳐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각오는 비상히 높으며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는 비약과 혁신, 창조와 변혁의 위력한 보검이 있다. 우리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우리 당의 종자론, 종자중시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비약을 일으키고 21세기를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세기로 빛내여 나가야 한다.

모든 일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식으로 해나가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창조의 영재이시다. 종자론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탐구력과 창조적안목, 심오한 철학적사색과 완강한 실천력이 집대성되여 있다.

언제나 종자론을 틀어 쥐고 세기적인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상한 창조력과 완강한 실천력은 우리의 삶과 투쟁의 고귀한 귀감으로 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창조방식과 사업방법, 사업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 글을 써도 위대한 장군님의 문풍대로 사상적알맹이를 똑똑히 심어 놓고 글을 쓰고 사업을 전개해도 장군님식으로 현실속에 들어 가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핵을 찾고 대담하게 전격적으로 해제껴야 한다. 오늘 종자론, 종자중시사상을 틀어 쥐고 자기 사업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사람이 경애하는 장군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해 나가는 참된 혁명가이다.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종자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정책은 사람들에게 창조와 변혁의 눈을 틔워 주고 끊임 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는 방도와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다. 당정책만 잘 알면 누구든지 당의 의도에 맞는 좋은 종자를 찾아 내고 창조의 묘리를 터득할수 있다.

종자론을 틀어 쥐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현 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전략적방침이다.

우리는 종자론을 구현하는것이 곧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과업이라는것을 잘 알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과학을 하는 사람이건 경제사업을 하는 일군이건 창작가이든 당일군이든 모든 사람들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현실성 있고 의의 있는 종자를 찾아 내여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높은 실력을 소유해야 한다.

종자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은 높은 실력을 전제로 한다. 사람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 들이며 아는것만큼 실천한다. 실력속에 창조가 있고 변혁이 있으며 기적의 비결이 있다. 실력이 있어야 창조와 변혁의 위력한 무기를 잘 활용할수 있다.

오늘의 시대는 실력전의 시대이며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보람찬 투쟁에서는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우리는 인재들을 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기둥으로, 보배로 아끼고 내세워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높은 실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피 타게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사물현상을 주체적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높은 정치적식견을 가져야 한다. 과학과 기술, 정보화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무슨 일이든지 막히는데가 없는 높은 실무능력, 기발하고 혁신적인 창조적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실력이다.

당조직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 당의 종자론을 구현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종자론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고 그를 현실에 구현하도록 적극 떠밀어 주어야 한다. 종자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며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을 안아 오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는것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고 종자론을 확고히 틀어 쥐고 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

21세기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진군길에는 아직 시련과 난관이 많으며 오늘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대단히 무겁고 방대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헤쳐 나가며 비약과 혁신의 폭풍시대를 안아 올수 있는 필승의 보검이 있다. 종자론과 같은 위력하고 생활력있는 창조와 변혁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새 세기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종자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하루빨리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 21세기의 광명한 미래를 빛나게 개척해 나가야 할것이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도록 이끄시여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3회
학사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25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도록 이끄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우리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 성지로 숭엄하게 꾸리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정중히 모시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존함과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을 생존하여 계실 때보다 더 잘 받들어 모실 굳은 맹세를 다지시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 성지로 꾸리는 사업에 온갖 지성과 충정을 바치시였습니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 성지로 꾸리는 사업에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정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은 이 성지와 그 주변의 모든 건축물들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특히, 어버이 수령님의 대리석 입상을 잘 형상하며 입상을 모실 홀을 정중히 꾸리도록 심혈을 기울이신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체83(1994)년 10월 중순,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날도 몸소 금수산의사당에 나오시어 대리상 입상을 잘 형상할데 대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대리석 입상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과 외국 손님들을 접견하시거나 기념사진을 찍으실때 뒷짐을 지고 서 계시던 자세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모습인 것만큼 그렇게 형상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입상을 모실 홀을 꾸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홀을 따로 내고 릉맛이 나게, 무게 있게 꾸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상홀에 음향설비를 설치해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숭엄한 선율을 타고 울려나오게 하시였고 입상 배경에 새벽노을을 형상하도록 하셨습니다.

금수산기념궁전 건립에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정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은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뵈옵기 위해 사람들이 오르게 되는 대계단과 이것의 조도와 음악, 그리고 기념궁전의 광장 등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계단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찾아오는 우리 인민들을 한품에 안는 것처럼 계단 아래는 넓고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도록 형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기본 건물의 구조에 구애됨이 없이 계단 폭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넓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된 기념궁전 계단은 건물 안에 있는 계단으로써는 건축역사에 없는 18미터 폭에 대계단을 이루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념궁전의 조도와 음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이 환한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갑자기 들어서면 한동안은 사물을 잘 가려보기 힘들다는 것을 헤아리시고 입상 홀로부터 계단을 거쳐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에 이르는 동안에 시력조절이 원만히 될 수 있게 조도를 점차적으로 낮추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입상홀로부터 시작해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계시는 홀에 이르기까지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의 노래소리가 은은하게 울리도록 음향설비를 설치하게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기념궁전 참관자들 중에는 고령의 몸이거나 육체가 불편해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만큼 계단 한쪽 옆에 승강기를 놓아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의사당창문을 모두 막아서 릉으로써의 성격이 부각되게 하셨고 기념궁전 정면의 높은 곳에 공화국 국장 대신 환하게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이용하시던 열차와 승용차 보존실, 얼음홀과 훈장, 메달 진열실을 정중히 꾸리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의 돌대문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지도에 의해서 한쪽 무게가 수십톤이 되는 돌대문의 붉은 화강석 바탕에는 금빛 대원수별과 그것을 정중히 받들어 올린 목란꽃과 진달래꽃이 부각 장식되었습니다.

기념궁전 광장에도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서거 100일 중앙추모회가 거행되던 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자리가 모자라게 되자 잔디밭에도 사람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날 잔디가 못쓰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일꾼들에게 잔디가 귀한 것이 아니라 수령님을 그리워하는 인민의 충성스러운 마음이 더 귀하다고 하시면서 금수산의사당 앞을 모두 광장으로 만들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장바닥을 모두 천연 화강석으로 포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금수산기념궁전에는 **김일성**광장보다 2배나 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광장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유서 깊은 금수산지구에 높이 솟아 김일성 민족의 존엄성을 더욱 빛내어주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공적을 천만년 길이 전할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념궁전건설에 바치신 뜨거운 충정은 돌울타리와 100정보의 수목원, 궁전정원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념궁전울타리를 천연화강석으로 새롭게 할 것을 발기하시고 단순한 돌울타리가 아니라 날아가는 학을 새겨놓은 하나의 대 예술품으로 만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기념궁전 돌울타리는 어버이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릉의 성격에 맞게 숭엄하고 웅장하게 그리고 인류의 지성과 문화의 최정수에 이르게 훌륭히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궁전 정원을 어버이 수령님께서 생전에 사랑하시던 꽃과 나무들로 꾸려 주시어 수령님의 위인상이 더욱 부각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념궁전주변에 100정보의 수목원을 꾸리고 거기에 반원림나무 풍치림구, 길음나무 림구, 섬유재질 림구 등 여러 원림구획을 조성해서 수목원이 현대적 미감에 맞으면서도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편 금수산기념궁전을 우리 인민들이 언제나 찾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온갖 심혈을 바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최고 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을 누구나 다 찾아와 볼 수 있는 인민의 궁전으로 되게 하시어 어버이 수령님과 우리 인민의 끊을 수 없는 혈연의 관계를 영원히 공고히 해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던 우리 인민들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올 때 조금이라도 불편해 할세라 현대적인 전동차를 놔주시고 비 한방울 눈 한송이 맞지 않게 궁전 외랑을 건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을 위한 전용버스를 수많이 보내주시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없이 수령님을 찾아뵈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평양비행장으로부터 기념궁전까지 직선 도로를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시어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외국 손님들도 곧바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체의 최고성지를 가장 훌륭하게 건립하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온갖 정성을 바치신 나날에 있은 하많은 이야기들을 다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열화 같은 충정에 의해서 금수산기념궁전은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립되어 어버이 수령님께서 심장의 고동을 멈춘 날로부터 한해가 되는 주체84(1995)년 7월 8일, 개관되게 되였습니다. 실로 금수산기념궁전은 어버이 수령님께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충성심의 결정체이며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불철주야의 헌신적인 영도에 의해서 마련된 주체의 최고 성지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고 그 무게와 가치를 가늠할 수가 없이 고귀하고 신성한 인류 공동의 최고 성지를 불과 1년이라는 역사의 한 순간에 소문도 없이 일떠 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세계의 신문, 방송들은 널리 보도했습니다.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도 금수산기념궁전 개관식이 엄숙히 거행된데 대해서 특별히 보도하면서 어버이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신 기념궁전은 최고의 성지, 제일가는 성지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금수산의 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개명하시고 바닥 돌장식 등 미세한 부문까지 지도하시어 이곳을 주체의 최고 성지로 만드시였다고 하면서 금수산기념궁전이 개관됨에 따라 훌륭한 성지가 꾸려져 앞으로 추모객들의 발길이 끝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하나의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 성지로 숭엄하게 꾸리시여 수령영생위업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유서 깊은 금수산지구에 높이 솟아 **김일성** 민족의 존엄성을 더욱 빛내어주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공적을 천만년 길이 전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 수령님의 영생 구호를 제시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통일연대, 방북불허 규탄

통일부의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참가 대표단 46명에 대한 불허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월 25일 통일부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대표단 46명에 대한 불허를 통보하였다.

통일부는 그 불허기준을 이적단체 소속원,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자, 그 외 다른 법에 의한 수배자나 출국금지자, 남북교류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 ≪대북민간교류 승인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자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통일부가 6.15남북공동선언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기여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우리는 통일부에게 묻는다. 이적단체 구성원이란 그 누구를 일컬음인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시대에 같은 동포인 북을 주적이라고 하고 이적단체를 운운하는 것이 과연 통일부의 자세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통일부는 이번 행사의 실질적인 불허기준으로 ≪남북교류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거론하고 있는 점이다. 만일 정신착란증 환자, 대북 적대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남과 북이 함께 하는 행사에 테러라도 가할 사람이라면 이 입장을 수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불허자들의 명단을 보면 부적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아니 이 모든 판단을 떠나서라도 만일 통일부가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의 대표체로서 조금이라도 존중할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준비위원회 대표단을 대규모적으로 선별 불허 조치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난해에도 두 번에 걸쳐 대규모적인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킨바 있다. 그 당시에도 통일부는 방북대표 일부를 불허시키는 무례를 저질렀다. 그러나 우리 통일연대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대승적으로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행사의 성사를 위하여 노력한바 있다. 수구 반통일 세력과 외세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한 통일부에 대해 심각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민간통일운동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통일연대는 우리의 그러한 피어린 노력과 인내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큰 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으며 이후로 통일부가 우리의 노력을 거름 삼아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존중과 애정, 6.15공동선언실현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대단히 불행하게도 통일부의 만행은 이제 도를 지나치고 있다.

≪대북민간교류의 승인기준에 부적합한자≫라를 잣대를 대단히 편파적으로 정하는 자체가 민간통일운동의 자주성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민간통일운동이 서야할 자리마저 완전히 말살하려는 저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번 통일부의 46명 방북불허조치는 부분적인 불허가 아닌 민간통일운동자체를 중대하게 왜곡, 말살시키는 조치이며 사실상 민족공동행사를 결렬시킨 사태이다. 이에 통일연대가 통일부의 부당한 선별방북을 받아드리지 않고 이번 민족공동행사가 좌초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민간통일운동이 나아가야 할 정도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통일의 길에 넘어야할 벽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힘도 온 겨레의 통일열망을 결코 꺾을 수 없다. 통일연대는 어떠한 난관과 장애가 앞을 막아 나선다해도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민간통일운동의 본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통일부가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에 제동을 걸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바라며 부당한 선별방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새해맞이 공동행사, 계획대로 진행

27일 열릴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 통일연대 측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예측이 가능한 것은 통일연대가 행사에 불참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화협과 종단이 행사가 잘 되도록 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측 역시 22일부터 현재까지 금강산에 머물고 있는 선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사표시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북측이 통일연대 불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일정 변동 소식은 없다≫며 ≪북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할 공동호소문의 경우도 남측이 준비한 원안에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로 합의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에 참가할 남측 참가단 208명은 오후 7시 이북의 장전항에 도착해 온천장으로 직행할 예정

이다. 준비위 관계자에 따르면 참가단은 온천 후 온정각에서 저녁식사를 하게되며 이어 온정각 교예공연장에서 22일부터 금강산에서 북측과 실무협의를 마친 8명의 선발대로부터 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숙소인 설봉호와 해금강호텔에서 북에서의 첫 밤을 지낼 예정이다.

또한 참가단은 27일 오전 10시부터 금강산 여관 앞에서 남북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행사를 갖게 되며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2시부터 금강산 여관에서 각 부문별 모임을 갖고 오후 4시부터 교예공연 관람, 6시부터 남북합동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도착해서의 상황은 아직 불투명 점이 있으며 통일연대 측이 불참함으로써 노동자 농민 대표들이 많이 못 와 몇몇 부문별 모임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남측 준비위는 공동대표로 이돈명 민화협 상임의장과 김철 천도교중앙총부 교령을 선임했으며, 북측은 주석단으로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 겸 북측 범민련 의장, 허혁필 민화협 부의장, 리진수 직총 중앙위 부위원장, 황병준 조선 종교인협의회 상무위원, 김영순 민화협 중앙위원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수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총장은 통일연대측의 불참과 행사진행에 대해 ≪우리사회의 문제가 유감스럽지만 올해가 통일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고, 이번 행사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전반기도 그냥 지나갈 것이고 후반기가 어려울 것이다≫고 진단하고 ≪이번 모임을 통해 보다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밝혔다.

통일뉴스 2002/02/26

≪가뭄에 왠 파업≫이냐더니 편파보도 여전

철도, 발전 노조가 파업 이틀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이 일제히 ≪시민볼모 파업≫이라는 구태의연한 편파 보도로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자 주요 방송 뉴스들은 ≪시민 발동동≫, ≪퇴근길 북새통≫, ≪혼잡극심≫, ≪교통대란≫이라는 제목으로 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다루면서도 정작 파업의 원인과 노조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후반부에 끼워넣기를 하고 있어 편파적인 보도라는 지적이다.

실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노조와 정부 및 사측에 대한 대립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민영화 반대≫에 대한 노조측의 대규모 결의대회와 집회는 수 십 차례나 개최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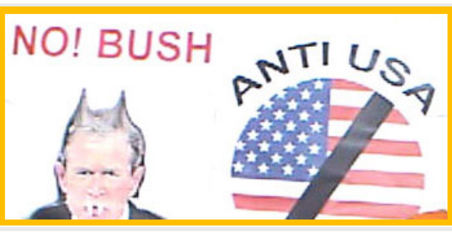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부터 ≪천대≫받던 노동자들이 파업 하루만에 시민의 불편을 가져오고, 밥그릇 싸움에만 여념없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방송 3사 모두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와 항의를 두 세 차례에 걸쳐 인터뷰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의 목소리는 싣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노동자의 노동권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국민의 불편만을 강조한 나머지 균형적인 시각이 견지하지 못한 방송의 이러한 행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정부와 노사간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해야할 방송이 모든 책임을 노조에게만 돌리고 있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언련 방송모니터 이지혜간사는 ≪방송 3사가 모두 핵심쟁점은 다루지 않고 시민의 불편을 강조한 나머지 노사양측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소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기자
시민의 신문 2002/02/26



반미(反美)의 위력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 반미의 무풍지대라는 한국에서도 반미의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아주 넓게 불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뜨거운 편이었다. 반미의 미풍(微風)조차 잘 불지 않던 한국땅에서 반미의 열풍(熱風)이 분 것이다.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은 지난달 말 부시의 ≪악의 축≫ 발언에 의해 촉발되었고, 부시의 방한이 가까워지자 분위기가 고조됐으며 그리고 부시 이한(離韓)후 꺼질 듯한 반미의 불씨가 의외의 곳에서 되살아났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의 한국 선수와 미국 선수간의 쇼트트랙 판정시비가 반미감정을 극대화시켰다. 반미대상 태풍의 핵인 부시가 한국을 떠났지만 곧바로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반미의 후폭풍이 불어온 것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스포츠와 외교는 별개의 것이라면서, 동계올림픽에서의 판정시비가 반미감정으로 흐르는 것을 못마땅해 하지만 이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부시방한반대 시위와 쇼트트랙 판정에 대한 항의는 외교와 스포츠라는 영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의 ≪반미≫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감정≫ 표출인 것이다.

최근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 한미간의 숱한 불평등조약은 차치하더라도 이전을 약속한 용산미군기지에다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것이나 F15 전투기를 팔아먹겠다는 것 등에 국민의 감정이 상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한 졸지에 한반도에 긴장과 전쟁분위기를 몰고온 부시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60%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던 참에 부시 방한에 때맞춰 대학생들이 세종로 이순신 장군상 위에 올라가 성조기를 불태우거나 또 삼성동 미 상공회의소를 기습점거 했어도 이에 비교적 관대했던 것이다.

이처럼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지만 그렇다고 행동하기는 어려운 판에 동계올림픽에서의 판정시비가 반미감정 폭발의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다. 특히 서버를 다운시킬 정도의 엄청난 수의 네티즌들의 성난 공격은 일정 부분 부시 방한때 미처 행동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때늦은 감정이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쇼트트랙 판정시비에 대한 국민과 네티즌들의 격렬한 항의는 단순히 스포츠 차원에 한정되거나 그릇된 판정에 대한 불만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9.11테러 사태 이후 미국과 부시의 막가파식 행태에 대한 일종의 반감으로 봐야 한다.

사실 이번 부시의 방한 국면에서 최대의 ≪이슈 포인트≫는 ≪부시의 방한 그 자체≫나 ≪부시의 거친 입에서 튀어나올 말≫이 아닌 또 ≪정부의 부시 달래기≫도 아닌, 부시의 방한에 대한 국민의 일련의 의식의 흐름 즉 반미정서였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부시 방한을 한마디로 결산하자면 미국이 ≪반미의 바람≫

을 회피하기 위해 잠시 또는 어쩔 수 없이 ≪햇볕정책≫을 지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미국은 이북에 대한 이른바 ≪압살정책≫보다는 한국의 ≪반미감정≫ 무마가 더 시급했던 것이다.

학생들의 이른바 반미 ≪선도투쟁≫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암묵적 지지가 모든 걸 무릎 꿇게 만든 것이다. 국민의 반미감정이 부시를 유순하게 만들었고 정부로 하여금 부시 달래기의 명분을 줬고 또 야당조차 딴소리 못하게 만들었고 언론조차 모양새 좋은 한미정상회담으로 꾸미기에 바빴다. 정부 당국자의 분석대로 부시는 ≪악의 축≫이나 ≪F15 전투기 강매≫ 등 ≪한국민의 관심사와 현안 등을 철저하게 사전점검해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 같았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1965년 당시 반일데모가 한일수교협상에서 한국정부의 입지를 넓혀준다는 점에 착안해 반미정서에 기댄 것으로 보인다. 정작 놀라운 것은 야당이다. 이북과 관련된 일에는 트집잡기와 발목잡기에 명수인 한나라당조차 ≪한미간의 대북인식과 정책방향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좁혀진 것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나라당조차 무언가에 놀란 게, 아니 눌린 게 틀림없다.

어쨌든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이북과의 전쟁반대, 햇볕정책지지, 한미동맹관계 재확인 등으로 나타났다. 부시는 이북에 대한 반감을 여전히 갖고 있었지만 ≪악의 축≫ 이상의 표현을 자제하려 했으며 그리하여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분위기가 평화상태로 반전된 것은 순전히 우리 국민의 반미정서 덕택이다.

반미의 위력이 유감없이 드러난 것이다. 이로써 한국땅에서도 때로 반미가 필요함을, 보다 정확하게는 정당한 반미, 국민정서에 맞는 반미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민족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반미는 이제 단순히 미국반대 차원을 넘어 6.15공동선언의 정신인 민족공조의 다른 표현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통일로 가는 하나의 길임을 보여주었다.

더군다나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의 쇼트트랙 판정시비에서 보여지듯 이제는 한국에서도 반미가 인화성(引火性)이 강한 물질임이 확인됐다. 굳이 외교나 정치운동이 아니더라도 스포츠나 문화를 통해서도 반미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그것은 곧 특정 시기 소수 운동권의 반미투쟁 차원이 아니라 언제고 다수 국민대중의 반미정서와 반미감정이 폭발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반미의 무풍지대인 한국땅에서 반미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통일뉴스 2002/02/23

네티즌들 분노, ≪조선일보≫에 불똥

오노 선수와 미국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조선일보≫와 김운용 대한체육회 회장에게로 모아지고 있다.

안티조선 사이트 ≪우리모두≫는 24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 이틀만에 5백여명에 이르는 서명을 받았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원호연씨는 ≪조선일보는 어느나라 신문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 억울한 자국 선수를 위로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비난하는 조선일보는 그래도 한국의 신문사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우리나라 신문이 아니었다≫라며 조선일보를 비난했다.

조선일보가 네티즌들의 분노를 산것은 만평을 통해 김동성선수가 태극기를 내팽겨친 것에 대해 ≪비난≫논조의 기사를 쓴것. 그러나 정작 김동성 선수는 ≪태극기를 내팽겨친 것이 아니라, 스케이트날에 걸려서 놓친것이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장세훈/최범수 기자
오마이뉴스 2002/02/25

네티즌 사이에 ≪미국제품 불매운동≫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 박탈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네티즌들의 반미 감정이 광범위한 ≪미국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불매운동은 그동안 미국 브랜드의 홍수속에서 생활해온 젊은 네티즌들이 자발적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에는 26일 오전 현재 미국제품 불매운동 사이트만 1백 20개나 개설돼 있다. 미국제품 불매운동 사이트가 경쟁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3일부터의 일로,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 박탈로 가뜩이나 국민감정이 험악한 가운데 미국 NBC TV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이 사실이 23일 밤 SBS 8시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네티즌 사이에 난리가 났다. 각 언론사이트와 포털사이트에 레노의 망언을 규탄하는 글을 쇄도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제품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네티즌들은 제안만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미국제품 불매운동 사이트를 개설

하기 시작했다.

다음에 개설된 ≪미국제품 불매운동(cafe.daum.net/ohnosiru)≫이라는 사이트의 경우 26일 오전 현재 6백75명이 회원으로 가입, 미국제품 불매운동에 서명했다. 24일 문을 연 이래 불과 이틀만의 성과다.

≪사서 안될 미국제품들≫에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바비브라운, 폴로, 레스포삭, 암웨이, 필립스, 3M, 퓨리나, 월마트에 이르기까지 1백여개 제품 및 기업명이 나열돼 있다.

현시원기자
프레시안 2002/02/26

부시는 결국 평양 간다

군사외교전문가 김명철 박사(조미평화센터 소장)는 24일 로스엔젤레스에서 가진 강연회를 통해 ≪부시 미대통령은 결국 평양에 방문하게 된다≫고 예견하면서 현재의 대북강경정책은 그 수명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미관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1)2003년에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결정적 약화, (2) 2005년 연방통일 기틀 마련, (3)2008년 주한미군 철수완료시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전망했다.

이날 오후 6시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남가주지부(회장:김정주 박사) 주최로 열린 강연회는 50여명이 참석, 평상시에 별로 듣지 못하던 조미관계와 한반도 통일전망에 대해 청취하면서 한시간 이상 진행된 김박사의 강연에 숨소리를 죽이면서 집중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의 부시 미대통령이 남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지난날 ≪이북 지도자를 믿지 못하겠다느니 북도 악의 축이라고 말하다가 1년도 못돼서 그 말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그런 말들은 일종의 말놀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박사는 또 ≪부시가 중국방문시에 장쩌민 주석에게 **김정일**과 회담할 수 있도록 부탁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되물으면서 과거에는 이북이 미국과 회담하자고 요청하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미국이 이북하고 대화하자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미간의 관계와 주변국의 관계들을 분석해 보면 ≪부시는 평양에 올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전망했다.

김박사는 이렇게 내다본 배경을 크게 두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김정일**의 통일전략의 역사성이고 또하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들의 배경들이다.

김정일의 통일전략에 대해서 그는 (1)한의 성전으로 일본과 미국에 대해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푸는 투쟁에 대해 그동안 보관을 가져왔고 (2)미국과의 정치전쟁으로 문제를 풀어야 통일을 이룰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먹을 것을 줄여가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왔다는 입장이고 (3)군사문제로 풀수 밖에 없다는 관점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은 일제와 분단이후 줄곧 문제가 되어온데서 나온 이른바 ≪선군정책≫을 통해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데 근거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작은 나라 이북이 초강대국 미국과 상대가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많은게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7세기 고구려의 을지문덕, 11세기 고려 강감찬, 16세기 이순신 등의 명장들이 강력한 외침들을 물리친 역사들을 포함하여 가까이에는 조선전쟁에서 이북과 미국은 결국 정전을 통해 전쟁이 승리없이 비기고 말았는데 이 전쟁이 비겼다는 것은 결국 이북이 초강대국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김박사는 조미간의 핵외교, 미사일외교에서도 이북이 미국에 맞설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북의 특징적 성격을 풍산개에 비교하여 설명했다. 일본 엔에치케이 테레비방송이 풍산개는 이리와 거의 비슷(99%)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풍산개나 이리는 지도체계가 질서가 있고 주도권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고 먹이를 가지고도 웃지위에 있는 것이 아랫지위에 있는 것으로 부터 빼앗지 않고 양보하고 싸울때는 끝까지 투쟁하는 기질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날 ≪조미외교관계 충돌≫에서도 구체적으로 증명된 실예들이 소개됐다. (1)프에블로 나포사건(1968.1.23)에서도 죤슨대통령이 사죄를 해야했고 (2)미정찰기(E-121)침범사건(1969.4.15)으로 이북이 미국정찰기를 공대공미사일로 추격시켜 33명의 미군이 즉사했는데도 닉슨대통령은 항공모함 4척으로 위협하는 척하다가 끝내는 아무 실효없이 끝난 사건이 있었고, (3)미루나무(포플러) 벌채사건(1976.8.18)도 포드 대통령이 집권한지 3년째 되든 해 미군병사 30여명이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미루나무를 도끼로 자르려고 하자 4명의 이북병사가 맨손으로 달려들어 못하게 하자 미군 한명이 던진 도끼를 받아가지고 막바로 미군을 향해 던지자 그것이 명중하여 2명의 미군장교가 즉사하고 4명의 이북병사들이 태권도로 나머지 28명을 미군들을 엎차기등으로 물리쳐 미군들이 도망간 사건이 일어났을때도 미국은 폭격기와 항공모함 미드웨이를 들이대며 위협하였으나 북을 공격하지는 못하고 이북이 유감(regret)이라는 정도로 끝낸 사건, (4)조미간 최초의 핵대결(1993-94)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은 말로만 1만명 미군증파니 하며 위협하다가 결국에는 93년 6월2일 뉴욕교섭 통해 94년 10월21일 제네바합의서에 양자가 서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뉴욕교섭 몇일전인 93년 5월29일 이북이 하루에 지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하나는 일본 근해, 나머지 두발은 괌과 하와이 근해에 명중시키는 바람에 미국측서 질겁을 하고 조미합의서에 서명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결과 (1)2003년까지 경수로 건설완료, (2)양자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 미국은 얼마 않있으면 이북이 붕괴하겠지 하는 마음에서 서명했는지 모르지만 이 합의서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김박사의 분석이다.

그는 ≪만약 미국이 2003년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북이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실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의 핵무장, 남한의 핵무장 등의 문제들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바라지 않는 미당국은 세계군사전략상 딜렘마에 빠지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일본, 한국의 핵무장 견제를 위해서도 어쩔수 없이 이북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이 또다시 강경대응으로 도전해 올 경우에는 일본, 미국본토, 그리고 남한은 일시에 불바다로 화하게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예상 했다.

이와같은 상황전개 때문에 부시는 평양에 오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재차 전망했다. 부시는 그때 가서 자신이 평양에 가야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리라는 말이다. 미국의 국내경제 쇠퇴로 인한 압박을 비롯하여 유럽에서의 미국고립,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등의 변수들을 놓고서도 부시의 불가피한 평양방문을 예고했다.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도 흥미를 모았다. 한 참석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방문에 대해 묻자 그는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방문에 대해서는 날자를 박지는 않았지만 사실 작년에 갈 생각도 있었으나 (1)남한 국방부가 재작년 ≪국방백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6.15선언한 상태에서 이북을 주적으로 발표한 점과 (2) 김영삼 전대통령과 일부 수구세력이 김위원장 남한방문을 반대하며 시끄럽게 한점과, (3)현 남한정부가 러시아와의 매끄러운 외교를 하지 못해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지 못한 점 등의 이유들을 들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통일전망과 어떤 통일이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에 대해 적화통일은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대답하면서 양측의 현실들을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연방통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8년 주한미군 완전철수 시기를 예견하면서 미국의 학자 사무엘 헌팅턴의 분석은 2010년이라고 진단(문명의 충돌)해 2년의 차이는 있는 분석이라고 소개하면서 2005년 연방통일을 이뤄도 주한미군을 박절하게 나가게 하는 것 보다는 체면을 살려 3~4년의 시기를 두고 명예퇴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양의 예의도 된다고 해설했다.

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2002/02/25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우려

여야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오는 3월12일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테러방지법은, 정부 원안을 몇군데 고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테러의 정의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이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며 반대하고, 국가인권위와 대한변협 등이 입법을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정치적 · 종교적 · 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하는 폭력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테러의 구체적 유형으로 △국가요인, 각계 주요인사, 주한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 상해 · 감금 · 살인 △국가중요시설의 방화 · 폭파 △폭발물 · 종기류 그 밖의 무기에 의한 무차별한 인명살상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등으로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국외테러조직 또는 반국가단체와 연계해≫라는 부분을 추가해 시위 등 국민들의 정치적 저항을 테러로 몰아부칠 수 있는 소지를 줄였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비껴가고 있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과거 정권 시절 정보기관과 군대, 경찰의 과도한 국민인권침해 사례와 공안통치의 경험을 안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런 조처가 민주주의 정착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 여론수렴과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2/02/26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2)

대표집필자 최성원 / 2001년 11월 6일

순　서

1. 두 개의 전선 이외에 다른 전선은 없다
▶ 2.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인가?
3.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가지는 의의
4. 민족민주운동의 미숙성과 그로 인한 전술적 패배
5. 전술적 실패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6.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에 대하여
7. 민족해방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
8.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전략문제에 대하여
9.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2.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인가?

김철수 동지가 비판을 집중했던 것은 우리들이 ≪두 개의 전선≫이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사용한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은 민족통일전선이라는 전략적 개념 안에 포괄되는 전술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역통일전선은 독자적인 지위나 발전전망을 갖지 못하는 전술단위의 전선입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지역통일전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해명하려고 하였습니다.

1) 조국통일운동의 당면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단위의 전선

지금 우리 남측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 통일지향세력을 결집시키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면서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새로운 전선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족통일전선이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민족적 범위의 통일전선이므로, 남측이라는 지역단위에서 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도 역시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 따르면,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통일전선은 마땅히 반미자주화를 강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조국통일위업은 반미자주화운동을 통하여 실현되어 가는 위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성이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역통일전선도 반미자주화를 자기의 강령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남측에서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통일전선에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조직들만 집결하는 것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관변단체, 보수단체, 시민단체들까지 총집결되어야 하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적 조건에서 지역통일전선이 반미자주화의 강령을 들고 나오는 경우, 중간세력들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전선으로 형성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남측의 지역통일전선이 마땅히 반미자주화의 강령을

➡

광고

PDF자료집

반통일역적 이회창

한민전중앙위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6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13 자주민주통일의 적, 이회창을 처단하자

반통일역적단죄를 위한 특별위원회
14 민족반역자 이회창역도를 정치무대에서 제거하자

반통일분자 이회창

글
22 이회창은 어떤 자인가 / **23** 이회창은 현대판 놀부
24 이회창을 매장해야한다 / **25** 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낀 이회창

대중투쟁
33 이회창이 학생들의 저지로 건국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관련해
34 대학생들이 한나라당해체를 요구하며 시위
35 1인 시위

이회창감시단

연단
40 6.15공동선언정신에 역행하는 범죄적 행위
41 이회창 놔두면 제2의 6.25가 터진다

과제
42 반이회창투쟁과 청년학생의 자세 / **43** 반이회창투쟁에서 지성인들의 자세
44 반이회창투쟁과 노동대중의 과제 / **45** 반이회창투쟁과 종교인들의 자세

시 45 권력에 미쳤어

들어야 하는 데,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이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한 것은, 반미자주화의 강령 대신에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여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전술적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지역통일전선이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여 형성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그 전선 안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주동적으로 작용하여 지역통일전선이 장차 반미자주화의 강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승 ·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단위의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지역통일전선 안에서 주동적으로 작용하여 지역통일전선을 상승 · 발전시킴으로써 그 전선이 반미자주화의 강령을 받아들이게 될 때, 지역통일전선의 강령과 민족민주전선의 통일강령 사이의 구분이나 민족통일전선의 강령과 민족민주전선의 통일강령 사이의 구분은 모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통일전선은 그때까지 존재하는 전술단위의 전선입니다.

전략과 전술을 혼동하거나, 또는 전략은 알지 못하고 전술적 투쟁에만 매달린다거나, 또는 전술은 알지 못하고 전략적 구호만을 외치면서 동력을 전략적 투쟁으로 집중시킨다면, 현실이 제기하는 매우 예민하고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대세력과의 투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통일전선에 관하여 우리들이 설명하였던 내용은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운동의 전술에 관한 것이였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중심축이 반미자주화운동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다양한 전술은 알지 못하고 전략적 구호만을 들고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미자주화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불변의 전략으로 정립되었습니다. 문제는 반미자주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여 혁명정세와 통일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전술적 투쟁을 능숙하게 전개하는 것입니다.

전술문제를 소홀히 대하여 전술적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는 운동의 주체가, 전술이 없는 전략적 투쟁만을 조직하면서 자신이 마치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관주의의 오류입니다.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과 전술은 조성된 혁명정세와 통일정세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전략과 전술, 조국통일운동의 전략과 전술과 밀접하게 결부되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6.15 공동선언의 제1항에는 민족자주의 과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6.15 공동선언은 그 과업을 반미자주화의 과업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미자주화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남측의 친미예속정권을 견인하여 6.15 공동선언을 채택해야 했으므로 그러한 전술적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6.15 공동선언에 제시된 민족자주의 과업은 반미자주화의 과업을 비록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어도 내용적으로 담고 있는 불변의 전략적 과업입니다.

지역통일전선도 친미예속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남측의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을 6.15 공동선언의 강령적 기치 아래 결집시키는 전선이므로, 현재의 조건에서는 민족자주의 과업을 반미자주화의 과업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반미자주화의 과업은 지금 주한미군 철수운동으로 수행되고 있는 데, 현 단계에서는 남측의 지역통일전선이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추진하는 전선으로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지역통일전선이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들고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추진한다면 그 전선에 포괄되는 역량의 범위는 민족민주운동의 범위로 좁아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이 당면문제를 고민하면서, 지역통일전선은 남측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하여 처음부터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내걸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6.15 공동선언을 기치를 들고 나서되 차츰 반미자주화의 기치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술적 조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을 마치 지역통일전선이 반미자주화의 전략적 과업을 포기한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김철수 동지는 ≪6.15의 호정세 속에서 반미자주화 노선을 접고 부차적인 요구와 투쟁계기를 앞세울 대신, 반미자주화의 주공방향을 전면에 내걸고 모든 요구와 계기를 반미자주화로 집약시켜내는 것이 응당한 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주장이 오늘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절실한 요구이지, 지역통일전선이 당면하고 있는 요구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통일전선이 민족자주의 과업을 명시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전선으로 형성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반미자주화의 전략적 과업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지역통일전선이 반미구국통일전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술적 조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과도한 문제설정입니다.

(내일 계속)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폭넓은 정치협상, 7.4공동성명 (1)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분단의 년륜은 4반세기를 넘어 70년대에 들어섰다. 새로운 연대의 초입에 들어서면서 세계정치기상도에는 하나의 새로운 정세기류가 일어났다. 60년대의 쏘미긴장환화에 이어 억척같이 등을 돌려댔던 중쏘관계가 눈녹이 추세를 보이더니 급기야 미국이 중국과 악수하는 기이한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월남전쟁에서 고배를 마시며 세계도처에서 뺨과 뒤통수를 얻어맞고 팔다리에 부상을 당하는데다가 국내적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와 인민들의 반전항거에 부딪치게 된 미국지배층은 힘에 의한 세계재패정책을 강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대결과 ≪평화≫의 절충전략으로 들고나온 것이 이른바 ≪닉슨주의≫이며 그것이 안고있는 대아세아전략은 큰 나라들과는 대결을 완화하고 남조선과 일본을 결탁시켜 그들의 뒤를 받쳐주는 방향에서 일선개입, 정면간섭을 줄이면서도 조선반도와 아세아에서 기득권을 보존하려는 것이였다. ≪닉슨주의≫가 표방한 대아세아전략은 한마디로 ≪한≫반도문제의 ≪한국화≫, 아세아문제의 ≪아세아화≫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71년 7월 15일 닉슨의 중국방문계획이 발표되었다. 닉슨의 중국행각은 국제정치무대에서 일어난 하나의 이변임에 틀림없었다. 랭전의 저기압골이 물러가고 정녕 해빙의 봄기운이 찾아드는 것인가,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였다. 이런 정세를 두고 락관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다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놓고서는 정세를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정세에 미치는 파문으로 보아 ≪71년도 바람≫으로 불러 마땅할 닉슨의 중국방문에 대하여서도 미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미국이 지난날 조선전쟁에서 패배하고 판문점에 흰기를 들고나왔듯이 베이징으로 흰기를 들고 찾아가는 패배자의 행각이라는 유명한 결론을 내리시었다.

참으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어놓기 위한 과학적 분석이고 주체적인 판단이였다. 혼잡속에 뒤숭숭하던 세계여론은 일거에 수습되고 진보적 인민들은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세계정치정세는 자주위업편에 유리하게 전변되게 되었다.

비록 남북대결과 ≪승공통일≫야심에는 변함이 없지만 박정희 역도도 완화추세를 보이는 이러한 국제정세에 전혀 등을 돌려댈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1970년 ≪8.15 경축사≫에서와 1971년 4월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이른바 ≪평화통일구상≫에 대하여 발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괴뢰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민당 ≪대통령≫후보로 나선 김대중도 ≪비정치적문화교류≫를 거치는 ≪평화통일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3단계 통일구상≫을 내놓았다. 1971년 4월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는 여당의 부정협잡이 감행되는 속에서도 김대중이 540만표를 얻어 90만표차이로 박정희에서 육박하였는데 당시 남조선과 일본의 언론계는 결국 ≪선거≫가 ≪통일안≫의 대결이었다고 론평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열망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는 것이였다.

(내일 계속)